

## 직업 역할에 따른 의복 장식의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한 명숙 · 하 희 정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의복 장식은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의 표현 욕구를 위한 매개체로서 의복을 보충해 주거나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인간을 아름답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부 및 의복에 부착되는 각종 소도구들로서 기능적인 면에 치중하거나 장식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대 복식의 형태는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단순화되고, 다목적에 사용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의복 장식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대의 의복 장식은 어떤 한 가지 목적만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의복 장식 품목 중에서 어떤 한 가지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며, 선택 과정부터 착용하기까지 착용자의 감정이 내포되어 착용자의 신분이나 직업, 지위, 가치, 개성 등이 나타나게 된다. 역할과 지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제복이나 베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는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고정관념에 따라 역할과 지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복 장식의 세부적 품목과 “~답다”라는 하나의 문화적 부호를 사용하여 남·여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역할에 따른 의복 장식의 고정관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임의 표집에 의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남·여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362부중에서 불충분한 자료 47부를 제외한 31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극물은 의복 장식 품목의 세부적 측면으로서 頭髮은 頭髮의 형태의 주된 특징에 따라 유형을 제시하였고, 毛髮 색상은 頭髮 형태에 따라 느낌도 달라지므로, 형태를 배제한 색상만을 제시하였으며, 색상의 유형은 실제 毛髮의 색상과 염색의 대표적인 색상이라 할 수 있는 black, brown, wine, purple, green, blue, lemon, orange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신발은 운동화에서부터 pumps, sandal, loafer, boots에 이르기까지 발을 감싸는 신발의 대표적 유형을 선별하여 제시하였고, 裝身具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와 안경, 머리핀과 머리띠, 넥타이, 스카프 등의 대표적 유형을 선정한 후, 외양의 주된 특징에 따라 도식화를 그려 제시하였다. 의미미분척도는 응답자가 의복 장식 품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직업 역할 고정관념 측정을 위한 것으로 '가장 학생답다'와 '가장 선생님답다' 5점, '가장 학생답지 못하다'와 '가장 선생님답지 못하다' 1점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0.0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초 통계 외에 집단간의 표본 평균과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역할(학생과 선생님 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두발 유형과 모발 색상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여학생답다'에 단발머리와 긴머리가 긍정 평가되었고, '남학생답다'에는 긴머리와 파마머리가 부정 평가되었다. '여선생님답다'에는 매우 짧은 머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긍정 평가되었고, '남선생님답다'에는 매우 짧은 머리만이 긍정 평가되었다. 모발 색상에 서는 '여학생답다', '남학생답다', '남선생님답다'에 검정색 만이 긍정 평가되었고, '여선생님답다'에는 검정색과 갈색이 긍정 평가되었다.

둘째, 직업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신발 유형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loafer는 여학생답고, 운동화는 남학생답다고 긍정 평가되었다. 또한 pumps는 여선생님답고, oxford는 남선생님답다고 긍정 평가되었다.

셋째, 직업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장신구 유형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여학생답다'에 머리핀과 버리띠가 긍정 평가되었고, '남학생답다'와 '남선생님답다'에는 넥타이가 긍정 평가되었으며, '여선생님답다'에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스카프가 긍정 평가되었다.

넷째, 의복 장식의 세부적 품목에 나타난 남·여 대학생들의 고정관념이 응답자의 성별과 직업역할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의복 장식 품목을 평가하는데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더욱 변별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여선생님과 남선생님이나에 따라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역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문화적 규범 즉, 제한적인 성 역할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